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최근의 연구 동향

서정민\*, 김남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Recent Research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Social Service Supply System

Jeong-Min Seo\*, Nang-Hee Kim\*\*

Institute of Social Welfar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Welfar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약**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학문적 연구 성과는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확장 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구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논문은 총 79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틀은 분석차원, 분석기준 그리고 분석내용으로 구분을 하여 빈도와 교차분석을 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품질관련 평가 모델이나 품질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모, 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련 자료 등의 공개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인구 특성, 형평성 그리고 지역 정보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서비스의 질의 감소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진입 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동향연구, 내용분석

**Abstract** Academic research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s very limited. This paper checked on the status of research on current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order to explore new research and policy directions. Analysis study consisted of 79 pieces and the framework was divided into dimensional analysis, content analysis and analytical standards. Research on the papers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s showed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policy discussion to the phase of the individual services. Summarizing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ies confirmed that at this time the quality studies o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s needed. Second, this indicates that right now, the government budget of social services and the data relating to social service agencies will be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studies. Third, to expand social services delivery systems research, it showed that social services demand forecasting research such as budget allocation, population characteristics, equality of public service and local information is needed. Finally, since the quality of service is reduced by the oversupply, the discussion of the entry regulations of social service providers is required.

**Key Words** : Social Welfare, Social Service, Social Service Supply System, Research Trend, Content Analysis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 2014S1A5B5A01012750)

Received 17 February 2016, Revised 30 March 2016

Accepted 20 April 2016, Published 28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Nang-Hee Kim

(Institute of Social Welfar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knh7465@sn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으로 구분되며,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포함하는 사회보장은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적인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 역사에서 보면, 사회보장은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휴먼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의해 전개되어왔다.

이에 반해 사회서비스는 1990년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체 또는 혼용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정부에 의해 개념화되었으며, 서비스 욕구의 다양성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공공과 민간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영리와 비영리로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급체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공급영역을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하여도 정부 예산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영리영역도 공공체로서 공공적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영리와 비영리 또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복지다원주의나 복지혼합경제의 개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21]. 하지만 서비스의 공급체계의 공공과 민간의 비교, 과정 평가, 적절성 등의 각각의 역할 학문적 논의나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는 공공과 민간영역 그리고 영리 민간 영역 등의 역할 재정립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동향의 확인은 학문의 발전 수준과 특성을 예측할 수 있고, 연구자들의 학문적 의사소통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타 학문과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72].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 동향은 처음 시도되는 연구로서, 향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동향연구의 의의

정책이나 서비스 제반과 관련된 동향 관련 선행연구는 연구자의 특성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된다. 동향연구는 내용분석법, 분석틀을 활용한 분석, 빈도분석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내용분석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79]. 연구 동향의 확인은 선행연구의 특징과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이론을 확립하거나 발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방향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은영과 김정석[84]은 한국노년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노인의 개념을 활용하여 노년 관련 현상과 정책조망을 시도하였다. 박지혜 외[30]은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효과성 논문으로, 이론적 기반의 경향성을 파악한 후, 지표개발 및 연구방법론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조직관리 측면의 조직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서인혜와 공계순[33]도 한국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활동의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실천현장에서 참여주체, 정보수집, 개발과정의 구현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망을 하였다. 주상현과 정인진[80]도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등을 활용하여 한국자치행정학정보의 논문과 내용분석법으로 그 경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동향연구는 기존 연구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학문 연구의 방향이나 실천현장의 새로운 시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2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쟁점들

사회서비스의 시작은 2005년 분권교부세로 시작하여 2007년 전자바우처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보육서비스 그리고 문화, 주택 바우처 등과 같이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31]. 사회서비스 확대는 사회서비스 논쟁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김영종[11]은 “한국의 미숙한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이 왜 등장했으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확대되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바우처 방식 일색(一色)으로 하는 것이 옳은 접근인가? 사회서비스와 여타 사회보장 부문(사회보험, 공공부조)과는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수요자의 통합적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해야 하

는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명칭된 것들과 새롭게 사회복지서비스로 불리는 것들은 공급체계에서 어떻게 구분되거나 통합되어야 하는가? 등의 의문을 둘러싸고 쟁점들이 형성되어 왔다.”고 그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쟁점의 또 다른 부분은 불명확한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유사어, 동의어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구별되는 용어로 이해가 되기도 한다. OECD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생산자, 유통, 사회, 개인서비스로 구분하며, 사회서비스는 개인 서비스를 제외한 공공의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하위 범주에는 교육, 공공, 국방,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함한다. 북유럽은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동일한 개념으로, 영국은 소득보장, 보건, 고용과 비의료적 성격의 서비스를 포함하며, 미국은 영국과 달리 소득보장, 교육, 의료 등을 포함하지 않는 휴먼서비스로 한정을 한다[37].

사회서비스는 관련 재원의 특성상 공급이 확대되면, 공급체계의 사회적 책임성 또는 공공성의 문제도 중요한 논쟁 주제가 될 수 있다[11]. 관련된 내용은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사회서비스는 민영화의 확대와 영리부문의 강조로 확대되고 있으며, 독일은 보존성과 민간비영리 부문의 전달체계 중심으로 그리고 스웨덴은 국가주도형의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제로 전개가 된다[21]. 한국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로 대변되는 사회서비스의 전략에 대한 평가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위한 제공주체에 대한 윤리, 운영, 수익 등의 독특한 공급체계의 쟁점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2.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선행연구 검토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2010년 이후의 외국의 선행연구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은정[16]의 각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Table 1> 참고).

그리고 국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논의는 김영중[11]의 연구에서 1980년대에서 2000년대를 조망하면서 제시한 쟁점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Table 2> 참고).

<Table 1> The change of Providers' Characteristic

Division	Subject
Swed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nlarge exclusive role of local government service providers</li> <li>·Expanding the role of the privatization process and the reduction of the public sector(Enlargement of th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li> </ul>
Eng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xtensive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and decrease Direct Supply system since the 1990s</li> <li>·Private non-profit sector is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in the privatization process.</li> <li>·The expansion of Commercialization last 10 years</li> </ul>
Ame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ince the beginning of social services, the private sector is more expending than the public sector.</li> <li>·The percentage of changes between the profit and the non-profit ratio is sensitive to the market regulation and public asset</li> </ul>
Ja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xpansion of the non-profit portion in nursing facilities</li> <li>·Expansion of the profit portion in Home visiting nursing service</li> <li>·Each social services entry barriers differences</li> </ul>

<Table 2> Issues of supply system research

Division	Discussion Topic
early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ckground : The need for expanded social service providers</li> <li>·Issue :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service providers</li> </ul>
early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ckground : New social risks emerged</li> <li>·Issue : Try innovative changes in social services / Expans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 providers</li> </ul>
Mid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ckground : Expand problems of An aging society and low birth</li> <li>·Issue : Character Changes in the social services</li> </ul>
Late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ckground : Activation of the voucher service</li> <li>·Issue : Established role of the private and public delivery system / Discussion of the supply system / Marke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the supply system / etc</li> </ul>

## 3. 연구방법

### 3.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한술정보(RISS)를 비롯한 연구 관련 검색사이트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와 공급의 주제로 검색을 하였다. 2006년 사회서비스 향상 기획단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2006년 이후 논문으로 한정을 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총 249개이며 박사논문, 학술지, 학술대표 발표 자료를 포괄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일차 검토를 통해 90편으로 정리되었으며, 동일한 연구의 중복을 피하고자 학술대회 발표논문, 박사 학위 논문 등은 제외하고, 연구재단의 등재지와 등재후보지 79편으로 한정하였다.

### 3.2 분석방법 및 내용

최근의 연구 동향의 논문을 비교하면, 연구자의 다양한 특성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우양호와 홍미영[54] 그리고 주상현[81]의 분석틀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차원, 분석기준 그리고 분석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분석틀을 활용한 이유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에 대한 영역별 기준의 확립이나 향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 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Table 3〉 Research framework

Division	Analysis Criteria	Contents
Basic	Duration/Number	2007~2015, 79
Research Area	Domain	① Current Situation & Issues ② Marketization & Related services ③ Efficiency & Public character ④ Supply & Delivery system
	Focus	① Established theory & Standardization ② Problem solving & Prescriptive
	Object	① Private sector ② Public Sector ③ Integrated
	Major	① Social Welfare ②Administration ③ Etc
	Grants	① Pure Research ②Research Funding ③ Rersearch after study services
Research Methods	Methods	① Descriptive Research ② Quantitative Research ③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Contents	Direction	① Analysis Phase ② Policy Recommendations
Researcher	Status	Status

Reference. Reconstruction framework by [54] & [81]

〈Table 3〉에서 보면, 분석의 틀은 분석차원, 분석기준으로 구분을 하였다. 먼저,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소영역별)로 구별하여 4개의 대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첫째, 현황과 과제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현황과 특징,

- 1) ①현황과 과제 ②사회서비스 시장화와 조직 ③개별서비스 시장화와 서비스 질 ④서비스 만족도 ⑤운영주체 ⑥주요국가 ⑦효율성 ⑧공급 특성 ⑨공공성 ⑩시장화와 일자리 ⑪서비스공급의 지역차이 ⑫전자바우처 ⑬서비스 개편방향

주요 국가의 특성 그리고 사회서비스 정책 개편이나 대안 제시 등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었다. 둘째, 시장화와 서비스는 공급체계의 주요 특성인 시장화와 관련된 조직 특성, 서비스 품질, 만족도 그리고 사회서비스 관련 고용을 포함하였다. 셋째, 운영주체별 효율성과 공공성은 서비스 공급주체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서비스 특성에 의한 공공성을 하나로 묶었다. 마지막으로 공급 및 전달체계는 서비스 공급 특성, 공급의 지역적 차이 그리고 전달체계인 전자바우처 등을 포괄하였다.

연구초점은 이론정립·규범과 문제해결·처방으로 구분하였다. 이론정립·규범 특성은 이론적 배경이나 이론 형성을 위한 논문을 포함하였다. 문제해결·처방 논문은 구체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방안과 제안 등이 포함되었다[81]. 일반적으로 문제 인식과 현황단계는 문제해결·처방의 욕구가 많을 수 있으며, 이론정립·규범은 사회서비스가 안정화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연구의 대상은 영리, 비영리 그리고 통합으로 구분을 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정부에 의해 주도된 정책으로서 공공과 민간이든 정부전달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비영리적 특성을 가졌다면, 사회서비스 확대에 의한 영리적 특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많지 않아 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포함하였다. 연구범위는 연구자의 전공영역으로 특성을 확인 하였다. 전공자의 전공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서비스 연구가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 특성을 구분해보면 학문적 연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비 지원은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향후 사회서비스 연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순수 연구와 연구비 지원연구의 분류 확인은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의 지속성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용역 후의 논문을 통해서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관련 연구가 정부의 정책지향점이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의 전개 방식은 분석국면과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자의 신분은 박사과정, 박사수료, 박사후, 연구원, 교수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확인은 관련 연구의 향후 발전방향이나 학문적 관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시하였다. 즉, 연구자가 박사과

정이나 박사수료생 그리고 박사 연구자가 많을 경우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연구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는 논문 주제를 년도 별로 정리하여 각 년도의 특성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4.1 연구영역

연구 논문을 영역별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현황과 과제는 2015년도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 이유는 개별서비스 현황과 서비스 확대에 따른 문제 인식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화와 서비스 제반은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등의 주제로 서비스 확충의 관점을 포괄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운영주체별 효율성과 공공성은 규모화와 산업화에 대한 확인을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공급 운영주체별 효과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국가재원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는 공공성까지 포함을 하였다. 운영주체별 효율성과 공공성은 2013년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 시기는 사회서비스 예산 및 공급기관의 확대와 함께 영리적 이익이 확대되면서 요구되어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많은 관심들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급 및 전달체계는 전자바우처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재원의 적절한 배분 등을 담고 있다.

<Table 4> Research Domain

Division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otal
①		5	5	3	2		5	3	3	8	34(44%)
②				2	2	3	3	1	1		11(14%)
③	2	1		2	2	1	2	5	2	3	20(25%)
④			1	1	4	2	2	2	1		13(17%)
Total	2	6	6	8	10	6	12	11	7	11	79(100%)

①Current Situation & Issues ②Marketization & Related services ③Efficiency & Public character ④Supply & Delivery system

연구 초점에서 이론정립·규범은 2013년에 문제해결·처방은 2012년 빈도가 가장 높았다.

<Table 5> Research Focus

Division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otal
①	2	5	4	5	4	4	5	10	5	5	49(61%)
②		1	2	3	6	2	7	1	2	6	30(39%)
Total	2	6	6	8	10	6	12	11	7	11	79(100%)

①Established theory & Standardization ②Problem solving & Prescriptive

연구영역을 연구초점과 교차 분석을 하였다. 교차분석의 시사점은 이론정립 및 규범의 관점에서 시장화와 서비스 제반과 공급 및 전달체계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으며, 문제해결 및 처방의 관점에서는 현황과 과제를 제외한 분야의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었다.

<Table 6> Cross tabulation between Domain & Focus

Division	Focus		Total	
	⑤	⑥		
Domain	①	21	13	34
	②	6	6	12
	③	16	4	20
	④	6	7	13
	Total	49	30	79

①Current Situation & Issues ②Marketization & Related services ③Efficiency & public character ④Supply & Delivery system ⑤Established theory & Standardization ⑥Problem solving & Prescriptive

연구대상 분석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연구는 영리와 비영리 구분이 없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서비스의 기본 예산이 정부예산에 근거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분리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영리와 비영리의 전달체계 비교 연구나, 영리와 비영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의 비교 연구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Table 7> Research Object

Division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otal
Private sector											0(0%)
Public Sector				1			1				2(3%)
Integrated	2	6	6	7	10	6	10	11	7	12	77(97%)
Total	2	6	6	8	10	6	11	11	7	12	79(100%)

연구자의 전공은 사회복지와 행정 그리고 기타로 구분을 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논쟁에서 보듯

이 전공별로 접근 방법은 차이가 없었지만, 그 내용은 구별 되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행정은 서비스전달체계나 전자바우처 그리고 경제적 효과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Table 8〉 Researcher Major

Division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otal
①		5	3	6	6	3	9	6	6	8	52(66%)
②	2	1	3	2	4	3	3	5	1	1	25(31%)
③										2	2(3%)
Total	2	6	6	8	10	6	12	11	7	11	79(100%)

①Social Welfare ②Administration ③Etc

연구자 전공과 연구영역을 교차분석 하였다. <Table 9>에서 보면, 사회복지학이 행정학 보다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는 행정학 관련 연구자의 현장접근성의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 관련 연구자의 적극적 참여 동인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자료 접근의 용이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9〉 Cross tabulation between Domain & Major

Division		Major			Total
		⑤	⑥	⑦	
Domain	①	28	5	1	34
	②	7	5	0	12
	③	10	9	1	20
	④	7	6	0	13
	Total	52	25	2	79

①Current Situation & Issues ②Marketization & Related services ③Efficiency & Public character ④Supply & Delivery system ⑤Social Welfare ⑥Administration ⑦Etc

연구비 지원은 순수학술연구가 54편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며 학교 및 연구재단 등의 연구비 지원은 18편 그리고 용역 후 논문은 8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 논문의 분류에서 순수학술연구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으로 분류를 한 주상현[81]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서비스 운영주체별 효율성과 공공성과 공급 및 전달체계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학, 재정학, 경제학 등의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과의 협업 연구가 더욱 촉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able 10〉 Research Grants

Division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otal
①	2	5	5	5	7	5	8	8	4	5	54(67%)
②				3	3	1	4	1	1	5	18(23%)
③		1	1					2	2	2	8(10%)
Total	2	6	6	8	10	6	11	11	7	12	79(100%)

①Pure research ②Research Funding ③Study after study services

#### 4.2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활용된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서술적 연구, 질적 연구로 구분을 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 연구와 서술적 연구로 구성되었다 (<Table 11>참고).

〈Table 11〉 Research Methods

Division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otal
①	1	6	4	6	3	3	6	6	3	6	44(54%)
②	1		2	2	7	3	5	5	3	5	33(43%)
③							1		1		2(3%)
Total	2	6	6	9	10	6	9	11	7	12	79(100%)

①Descriptive Research ②Quantitative Research ③Qualitative Research

<Table 12>에서 보면 양적연구는 빈도분석, 시계열분석, 로짓분석, 매개효과, 다층분석, 자료포락분석(DEA)의 통계 기법이 사용되었다. 모든 연구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로짓모형과 이산선택모형을 그리고 다층모형과 음이항회귀분석 등을 동시에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였다.

〈Table 12〉 Using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Division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otal
Frequency	1		2	1	3	1	1	1		1	11
T test					2						2
Regression				1			2	3	1		7
Time series					1					1	2
HLM						1	1		2	1	6
Logit						1					1
Med-Effects							1				1
DEA								1			1
CVM					1						1
A single Case										1	1
DID										1	1
Total	1	0	2	2	7	3	5	5	3	5	33

<Table 13>에서 보면 서술적 연구는 전망이나 외국 사례 소개나 정책적 제언 등을 활용한 제도분석, 문헌 연구, 사례분석 그리고 탐색적 연구 등이 있었다. 또한 질적연구는 2편으로 많지 않았으며, 그 내용은 사례분석과 신제도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동형화로 제공기관의 유형에 따른 종사자에 관한 특성연구였다. 향후 연구의 성장 가능성에서 보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인력과 이용자 관련 질적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가 축적이 될 수 있다면, 향후 사회서비스 인프라구축과 인력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Table 13> Using descriptive research methods

Division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otal
①		5	3	5	2	3	3	4	3	5	33
②		1					1	2			4
③				1	1						2
④	1		1				2			1	5
Total	1	6	4	6	3	3	6	6	3	6	44

①Institution research ②Literature research ③Case analysis ④ probe study

### 4.3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분석국면과 정책제언으로 구분하였다. <Table 14>에서 보면, 정책제언의 논문이 분석국면보다 많은 빈도를 보였다.

<Table 14> Research Contents

Division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otal (ratio)
①	1			2	6	1	2	3	5	4	24(32%)
②	1	6	6	6	4	5	10	8	2	7	55(68%)
Total	2	6	4	8	10	6	11	11	7	12	79(100%)

①Analysis Phase ②Policy Recommendations

연구영역을 연구내용인 분석국면과 정책제언으로 교차 분석을 하였다. <Table 15>에서 보면, 분석국면은 24 편으로 현황과 과제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책제언도 현황과 과제가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의 방향은 시장화와 서비스 제반이나 공급 및 전달체제와 관련된 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able 15> Cross tabulation between Domain & Focus

Division	Focus		Total	
	⑤	⑥		
Domain	①	9	25	34
	②	3	10	12
	③	8	12	20
	④	5	8	13
	Total	24	55	79

①Current Situation & Issues ②Marketization & Related services ③ Efficiency & Public character ④Supply & Delivery system ⑤ Analysis Phase ⑥Policy Recommendations

### 4.4 연구자 지위

연구자의 신분은 제1저자(주저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Table 16>에서 보면, 연구결과는 박사과정 8명, 박사수료 6명, 박사 6명, 박사후 3명이었으며, 12명의 연구원과 44명의 교수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지위는 향후 사회서비스 연구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신분이 박사과정, 박사 수료생, 박사의 연구물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숫자가 크지 않은 관계로 의미의 부여는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able 16> Researcher Status

Division	①	②	③	④	⑤	⑥	Total
2006	1			1			2
2007					3	3	6
2008					3	3	6
2009			1	1	1	5	8
2010		1	2		3	4	10
2011	1	1				4	6
2012	1			1		10	12
2013	1				2	8	11
2014	1	1	2			3	7
2015	3	3	1			4	11
Total	8	6	6	3	12	44	79

①Doctor's course ②Doctor course completion ③Doctoral degree ④ Postdoctoral ⑤Researcher ⑥Professor

연구영역을 연구자의 지위로 교차분석을 하였다. <Table 17>에서 보면, 연구원이나 교수의 연구보다는 박사과정, 박사수료, 박사 및 박사후 연구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학자로서 성장이 필요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자에게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able 17> Cross tabulation between Domain & Researcher

Division	Researcher			Total	
	Doctor	Researcher	Professor		
Domain	①	7	8	19	34
	②	3	0	9	12
	③	8	2	10	20
	④	5	2	6	13
	Total	23	12	44	79

\*Doctor includes Doctor's course, Doctor course completion, Doctoral degree & Postdoctoral

4.5 연도별 경향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논문을 정리하여 연도별 특성과 주제를 제시하였다(<Table 18>참고). 2006년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의 시작을 기점으로 2007년 정책연구, 2008년과 2009년은 확대방안, 2010년은 사회서비스 시행에서의 지차체 역할에 대한 연구, 2011년, 2012년은 제공주체

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13년은 공급체계에 대한 논의, 2014년은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논의 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종합적인 연구로 전개되었다.

5. 결론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주체가 보여주는 민간과 공공의 구별이 아닌 수익 발생을 전제로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영리와 비영리로 구별하면서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그 연구는 극히 원론적인 정의나 가치 설정 그리고 서비스 제공체계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이론 설정을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서비스 대상 및 영역의 확대에 개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향후 연

<Table 18> Annual social services supply system information

Division	Contents
2006	- Characteristic : Start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research - Subject :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Service Provision[26], The cooperation pattern of social service non-profit organizations[31]
2007	- Characteristic : A full-scale Social Services policy research - Subject : The Status of Social Services Policy & The Goal of Service Expansion[2],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Reform[21], Contracting of social services[23], Introduction of foreign social services[27,52,58]
2008	- Characteristic : Discussion on social services expanded - Subject : Embodiment of the supply system[1,51], Utilizing electronic voucher[71], Foreign Changes in the social services market[61], Discussion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restructuring[37], Privatization of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83]
2009	- Characteristic : Expans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 Subject : Restructuring of social services in Foreign[20,28,40], Compare social services[10,66], Local government and social services[89], Funding Policy for users[14], Social services and employment[65]
2010	- Characteristic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the settlement and the marketization - Subject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the marketization[6,19,25,32,41], Discussion on social services quality[85], Forecasting the demand for social services[3], Social services of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17], Compared to the recognition of customers and suppliers[44], Regional equity in social services[67]
2011	- Characteristic : Study on the social services provider - Subject : Characteristics of Providers and the role of provider[49,68], Policy on supply activated(marketization, industrialization, profit, compete)[8,70,73,75]
2012	- Characteristic : Research for the supply system of social services - Subject : Profit and non-profit[4,24,46,63,82],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supply system[11,74,9], Evaluation of Social Services[18,42,52,76]
2013	- Characteristic : Earnest study of the supply system - Subject : The role of the principal social services delivery system[39,64,89], Quality of social services[7,13], Critique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an alternative to the social service delivery policy[12,15,22,45,50,69]
2014	- Characteristic : Earnest discussion on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 Subject : Quality of social services[5,62], Comparison of Social Service Providers[16,48,87], Research on social services to meet demand[56], Research on social services funding approach[78]
2015	- Characteristic : The diversity of approaches and research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 Subject : Marketiz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43], Financing of care services and Management of the quality of the provider[55,57,60], Constructing Demand and Supply Forecasting Model of Social Service[36], Exploratory Research on the new governance[29,59], Evaluation of social services policy[47], Changes in the delivery system[77,86,90]



구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 정책과 제도 또는 공공성과 같은 가치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은정[16]의 언급처럼 공급체계의 핵심 요인은 서비스 품질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는 품질관리 기관의 필요성이나 사회서비스 품질의 개념에 대한 연구로 한정 되어 있었다. 향후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품질관련 평가 모델이나 품질 인증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영역의 결과로 보면, 사회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제정의 재원이 한계가 있다면, 그 실행체계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의 모색이나 새로운 공급 유형 체계에 대한 연구 등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비용은 많은 부분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 등 정책적 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서비스가 보여주는 경제적 효과나 사회복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일부 연구가 있기도 하지만[37,38],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데이터의 한계로 매우 제한적인 연구임을 알 수 있다. 연구의 확장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 개별 서비스 기관의 관련 비용 집행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 접근이 용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뢰성이 확보된 개관적 자료는 공급체계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과 민간에 상관없이 형성되고 있는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개념 정의나 구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리와 비영리의 특성에서 보여주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 등의 비교 연구는 향후 사회서비스 발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에 사회복지의 편향성을 벗어나기 위해 타 학문영역의 참여 동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운영주체에 대한 연구나 공급 및 전달체계에 관련된 연구에서 행정학, 재정학 그리고 경제학 등의 연구자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사회서비스 연구는 좀더 풍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분석방법에서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직무만족도나 서비스 체계 개선 등에 활용될 관련 경험 등을 포함하는 질적연구가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사회서비스의 예측이나 변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예산 배분에 대한 인구집단의 특성, 형평성 그리고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서비스 수요예측에 의한 공급체계의 대응관련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리와 비영리의 공급체계를 위한 기반시설 활용, 신규 공급체계 유입 등의 방안 그리고 위탁공급에 관한 연구 등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사회서비스의 시장적 특성이 공급체계의 개편과 서비스 선택권의 보장에 대한 정책적 기대와는 다르게 공급과잉이 서비스의 질을 감소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진입과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도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분석틀 구성의 정교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객관적인 분석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인 근거로 분석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분석틀의 내용에서 보면, 연구영역별 분류 과정에서 해석의 자의성이나 주관적 판단 그리고 분류의 오류나 강제적인 개연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연구영역이 중첩되는 경우 그 판단 근거에 주관적인 개인의 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등 논문의 분류와 관련된 신뢰성과 타당성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의 연구에서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ACKNOWLEDGEMENTS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S1A5B5A01012750)

## REFERENCES

- [1] H. K. Kang, "Social Service Policy and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s in Korea", Journal

- of Critical Social Welfare, Vol.25, pp.67-98. 2008.
- [2] H. K. Kang, "The Status of Social Services Policy & The Goal of Service Expansion", Issues in Social Service Policy, Vol.125, pp.6-22, 2007.
- [3] T. H. Ko, J. H. Kim, K. S. Hwang, "Study on social services demand estimation using cvm",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Vol.20, No.3, pp.135-154. 2010.
- [4] S. A. Kweon, G. J. Kim, "Relation of Market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Nonprofit Human Service Organization toward Social Service Marketiz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5, pp.227-242. 2012.
- [5] H. J. Kwon, "The Impact of the Marketization on the Long-term Care Provision in Terms of Service Quality", Social Welfare Policy, Vol.41, No.1, pp.289-313. 2014.
- [6] Do. H. Kim, "Policy Implications of Governance-based Approach for Effective Provision of Welfare Administration Services of a Local Governmen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6, No.2, pp.297-317. 2010.
- [7] M. J. Kim, J. I. Kim, "Factors Affecting the Service Quality of Social Welfare Service Facilities", Korean Public-Administration Quarterly, Vol.25, No.1, pp.193-211. 2013.
- [8] M. Y. Kim, S. J. Kim, H. S. Kum, "The Influence of Service-Provider's Competition and Consumer's Choice on Social Servic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15, No.4, pp.153-176. 2011.
- [9] B. Y. Kim, "An Analysis of Social Service Discourses in Britai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4, No.1, pp.299-324. 2012.
- [10] S. M. Kim, "A Comparative analysis of CSI in the specificity of organization",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 Vol.6, No3, pp.115-142. 2009.
- [11] Y. J. Kim, "Historical Path, Issues, and Reformation Course of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2, No.2, pp.41-76. 2012.
- [12] Y. D. Kim, I. M. Hwang. "Drivers of social service subjects and the future of service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5, No1, pp.139-167. 2013.
- [13] Y. S. Kim, H. J. Kim. "Determinants of the Efficiency about the care service providing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5, No.4, pp.61-96. 2013.
- [14] E. J. Kim "Policy Approach on User-directed Financial Support in Social Service Area",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5, No.1, pp.119-144. 2009.
- [15] E. J. Kim, "Current Issues Regarding Social Service Policies in Korea",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24, No.1, pp.111-136. 2013.
- [16] E. J.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Provision Agents in Social Care Service",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25, No.1, pp.169-195. 2014.
- [17] In, Kim, "Effectiveness and Customer Satisfaction of Caretaker Voucher Service for Postpartum Women and Infan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Vol.13, No.4, pp.127-151. 2010.
- [18] In, Kim, "The Influence of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Voucher Program for Improvement Service of Child Cognitive Ability o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Korean Governance Review, Vol.19, No.3, pp.267-300. 2012.
- [19] J. G. Kim,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on the Formation of Social Service Market",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32, pp.85-105. 2010.
- [20] J. M. Kim, "Civic Participation in Supply Process of the Japanese Welfare Servic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2, pp.137-159. 2009.
- [21] J. W. Kim, "A Study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Reform in Social Services, Social Welfare Policy", Vol. 31, pp.177-210. 2007.
- [22] H. Y. Kim, "Toward Community-Based Service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5, No.1, pp.169-195. 2013.
- [23] S. P. Rno, "A Study on the Contracting out Local Government Service", Korean Governance Review,

- Vol.14, No.2, pp. 175-201. 2007.
- [24] Y. H. Rho, "With Conflicting Feelings toward Unprepared, but Unavoidable Competition among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Policy*, Vol.39, No.1, pp.133-161. 2012.
- [25] J. S. Ryu, "On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in Daejeo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21, No.2, pp.85-108. 2010.
- [26] S. J. Park, "A Study on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Service Provision by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Vol.20, No.1, pp.118-135. 2006.
- [27] S. K. Park, "Rec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s policy in America", *Issues in Social Service Policy*, Vol.125, pp.62-75. 2007.
- [28] S. S. Park, "A Study of Social Service Extension and Reorganization in Welfare Stat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1, No.3, pp.155-177. 2009.
- [29] J. H. Park, "Exploration of alternative governance models in the social services sector",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7, No.1, pp.147-187. 2015.
- [30] J. H. Park, Eun-Joo Park, Sang-Mi Ch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1, No.1, pp.33-55. 2009.
- [31] C. S. Park,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operation pattern of social service non-profit organization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0, No.4, pp.353-376. 2006.
- [32] Y. W. Byun, "An Study on the Use of Long-term Home care Service in Agricultural District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26, No.3, pp.283-208. 2010.
- [33] I. H. Seo, G. S. Kong, "A Study on Tendencies of the Development Activities in Social Service Program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44, No.4, pp.287-320. 2009.
- [34] J. H. Seo, "A Study on the examination of the change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local government", *Korean Governance Review*, Vol.15, No.1, pp.139-164. 2008.
- [35] J. M. Seo, D. I. Cheon, I. J. Lee. "A Analysis for the Economic Effects of Social Services Voucher by using the Inter Industry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4, No.3, pp.1-30. 2012.
- [36] J. M. Seo, "Constructing Demand and Supply Forecasting Model of Social Service using Time Series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6, pp.399-410. 2015.
- [37] J. M. Seo, "A study on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social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5, No.4, pp.201-223. 2013.
- [38] J. M. Seo, "A Study on Economic Effects of Social Service",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24, No.3, pp.33-54. 2013.
- [39] W. I. Son, T. K. Park. "A Study on the Role of NPOs as Social Services Providers on behalf of Central Government in Korea: Size and Structure", *Korean Nonprofit Research*, Vol.13, No.1, pp.3-22. 2013.
- [40] I. J. Song, "The Implication of Management Policy for Social Care Providers and Social Service Jobs based on the New Managerialism in UK",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1, No.3, pp.289-316. 2009.
- [41] C. H. Shin, S. K. Kang, "The Provision Structure and Voucher Operating System in Korean Community Social Investment Servi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2, No. 2, pp.399-420. 2010.
- [42] C. H. Shin,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Service Satisfaction Using Vouch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4, No.4, pp.137-161. 2012.
- [43] C. H. Shin,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Learning, Market Orientation and Performance in the Elderly Facilitie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1, No.2, pp.1-27. 2015.
- [44] Y. M. Sim, "A Perceptual Comparison Study of Suppliers and Demanders for Delivery System

- improving in Social Welfare Servic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6, No.3, pp.257-285. 2010.
- [45] K. Y. Yang, “The Changes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Publicity”,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Vol.27, No.1, pp.89-114. 2013.
- [46] N. J. Yang, S. H. Lim & S. Y. Han, “An empirical study on ownership of social service agencies and the quality of service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4, No.4, pp.27-52. 2012.
- [47] N. J. Yang, “An Evaluation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 in Korea”,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22, No.4, pp.189-223. 2015.
- [48] N. J. Yang, “A Study on Differences and Institutional Isomorphism Between Non-profit and For-profit Nursing Home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6, No.1, pp.179-207. 2014.
- [49] N. J. Yang, “Analysis on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Vol.38, No.3, pp.191-219. 2011.
- [50] S. W. Yang, “A study of The Publicness evaluation on social services organization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5, No.3, pp. 133-160. 2013.
- [51] K. W. Um, “An Exploratory Study on Change in the Elderly Welfare Service Supply System and How to Settle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0, No.3, pp.69-94. 2008.
- [52] S. Y. Oh, “The Change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Supply System by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Japan”, *Social Welfare Policy*, Vol.28, pp.141-165. 2007.
- [53] Y. J. Oh, C. Y. Nam,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Social Service Project Evaluation”,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Vol.37, pp.249-283. 2012.
- [54] Y. H. Uh, M. Y. Hong, “An Assessment of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997~2004)”,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8, No.2, pp.75-103. 2004.
- [55] Atsushi Yuyama, Y. D. Kim, D. S. Lee, I. M.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nges of LTC Quality Measuring Indicator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7, No.2, pp.153-182. 2015.
- [56] J. E. Yoo, “The Effect of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on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4, No.4, pp.123-152. 2014.
- [57] J. E. Yoo, “The Supply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a Registration Ratio of Nursing Hom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5, No.1, pp.330-362. 2015.
- [58] H. S. Yoo, “Provider System of Home-help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Germany and Japan”,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23, No.3, pp.201-226. 2007.
- [59] G. S. Yoon, W. S. Choi, “An Exploratory Study on the Governance of a Social Co-operative Providing Social Care Services”, *The Review of Social & Economic Studies*, Vol.47, pp.278-340. 2015.
- [60] D. S. Lee, E. J. Kim, Y. D. Kim, N. K.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ayment System, Provision Agency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of Adult Home Care Services”,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24, No.1, pp.161-181. 2015.
- [61] D. S. Hwang, “The Effects of Extending Market Principle in Personal Social Service in the UK”,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8, No.3, pp.63-91. 2008.
- [62] M. H. Lee, J. S. Choi, S. W. Lee, “Improve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ong-term Care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Vol.41, No.4, pp.51-76. 2014.
- [63] S. K. Lee, M. O. Oh, “The Problem of the Public Interests of Social Services Delivery System and the search of ways of Improve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26, No.3, pp.385-405. 2012.
- [64] S. Y. Lee,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of Mixed Public-Private Finance and Provision”, 21st

-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Vol.23, No.2, pp.347-370. 2013.
- [65] Y. B. Lee, S. Y. Nam. "A Study on the Job Creation from the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Vol.23, No.2, pp.99-126. 2009.
- [66] Y. P. Lee. "A study on the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of Social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11, pp.33-67. 2009.
- [67] Y. K. Lee, "Time Series Analysis of Geographical Equity in the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 Korea(From2003 to 2008)", Social Welfare Policy, Vol.37, No.2, pp.201-216. 2010.
- [68] I. J. Lee, "The Main Actors' Role Change and Supply-Demand System of Social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Vol.82, pp.85-112. 2011.
- [69] J. W. Lee, I. D. Choi, S. W. Park, "A Study on Related Factors of Service Utilization and Infrastructure's Demand Sufficiency of Long-term Care Insurance at Regional Level", Social Welfare Policy, Vol.40, No.2, pp.149-178. 2013.
- [70] J. W. Lee, J. W. Sonn, "Market and Industry in Social Service Policy",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 Vol. 82, pp.45-84. 2011.
- [71] J. W. Lee, "The Market and Consumer-Directed In-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the Korean e-Voucher System",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Vol.15, No.3, pp.1-28. 2008.
- [72] J. J. Lee, J. K. Park, H. S. Lee, I. S. Ku, "Analysis of EDI Research Trends with Focus on the R&D Reports from 2000 to 2009", Korea Development Agency for the Disabled. 2010.
- [73] J. B. Lee, S. I. Park, "Study on the Effect of vouchers available by Location of social service providers and agencies Profits",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Vol.20, No.4, pp.371-399. 2011.
- [74] J. W. Lee, J. W. Jeong, S. J. Lim, "The direction of restructuring of welfare provision system for the disabled: centered on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s amo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Vol.19, pp.131-150. 2012.
- [75] J. S. Lee, J. H. Park. "Effectiveness Evalu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1, No.4, pp.5-33. 2011.
- [76] C. K. Lee, S. Y. Nam, Y. B. Lee, "Improvement Directions for Effectiveness of the Early Intervention Service for the Children with ADHD",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Vol.8, No.5, pp.165-255. 2012.
- [77] Y. C. Chang, "A Study of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North Korean Studies, Vol.11, No.1, pp.71-102. 2015.
- [78] N. K. Jo, K. I. Kim. "Payment Systems of Social Care Services and Their Changes: A Comparative Case Studies on Sweden, UK, US, Singapore, Japan and Korea",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6, No.2, pp.271-303. 2014.
- [79] S. M. Cho, J. H. Lee, K. H. Khan, J. H. Song, "A Review of Social Enterprise Research: What are Recent Trend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5, No.1, pp.105-138. 2013.
- [80] S. H. Ju, I. J. Jeong, "A Research Tendency and Policy Implication of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2005-2008)",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23, No.1, pp.411-432. 2009.
- [81] S. H. Ju, "A Research Tendency and Policy Implic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27, No.2, pp.483-512. 2013.
- [82] E. S. Ju, "Social Profits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Fund's Investment into Public Social Service", Social Welfare Policy, Vol.39, No.3, pp.181-209. 2012.
- [83] E. G. Ji, "Social welfare privatization and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Korea Social Policy

- Review, Vol.15, No.2, pp.99-143. 2008.
- [84] E. Y. Choi, C. S. Kim, "Review on the Recent Research in Social Gerontology,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19, No.1, pp.165-185. 2012.
- [85] E. Y. Choi, "Job Characteristic of Care Workers in Elderly Care Voucher Service as a Quality Elemen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33, No.3, pp.101-121. 2010.
- [86] J. S. Choi, Y. R. Yang. "A study on a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the rural elderly from a perspective of provider in Heongsu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67, pp.167-196. 2015.
- [87] H. J. Choi, "A study on a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the rural elderly from a perspective of provider in Heongsung.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28, No.4, pp.255-281. 2014.
- [88] D. W. Han, "Community-based welfare provision system: Positioning and network of social welfare agencie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5, No.3, pp.285-311. 2013.
- [89] S. M. Han, S. G.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Service Provi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in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ject", Social Welfare Policy, Voi.36, No.3, pp.423-447. 2009.
- [90] S. J. Han, H. S. Choi, "An Exploratory Study of the changes on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and Accountability",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Vol.24, No.4, pp.253-276. 2015.

### 서 정 민(Seo, Jeong Min)



- 1994년 8월 : 연세대학교 신학과(신학사)
- 2013년 9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박통합과정(문학박사)
- 2014년 7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박사후연구원)
- 관심분야 : 사회서비스, 장애인복지,

자료분석

· E-Mail : dunord@hanmail.net

### 김 낭 희(Kim, Nang Hee)



- 200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5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 연구원

· 관심분야 : 약물(마약) 중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평가

· E-Mail : knh7465@snu.ac.kr